



미 증시, PCE 물가 둔화 vs 금리 상승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30 일(목) 미국 증시는 10 월 PCE 물가 둔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발표 이후 유가 급락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하락 소식에도, 뉴욕 연은 등 주요 연준원들의 매파 발언, 금리 반등, 월말 수급 리밸런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다우 +1.5%, S&P500 +0.4%, 나스닥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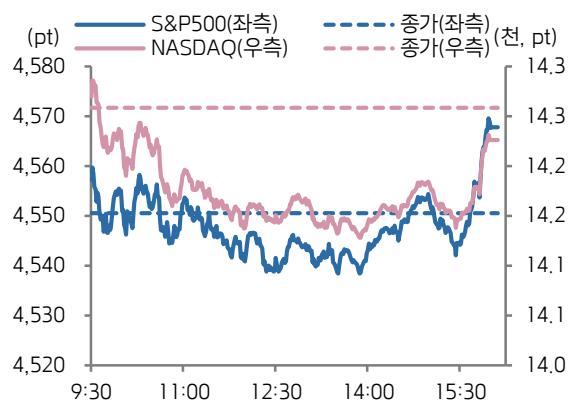
미국의 10 월 PCE 물가는 3.0%(YoY)로 전월(3.4%)에 비해 둔화됐으며, 컨센(3.0%)에 부합. 코어 PCE 물가도 3.5%(YoY)로 전월(3.7%)에서 내려왔으며, 컨센(3.5%)에 부합.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8 만건으로 전주(21.1 만건)에 비해 증가했으나, 컨센(22.0 만건)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

OPEC+는 사우디(100 만배럴)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하루 총 220 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자발적으로 단행하는데 합의. 또한 브라질이 2024 년부터 산유국 합의체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그러나 의무 감산이 아닌 자발적인 감산이었던 만큼, 이날 국제 유가는 2%대 하락세를 연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서 제약적인 스탠스를 꽤나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과 불균형이 지속될 시 추가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인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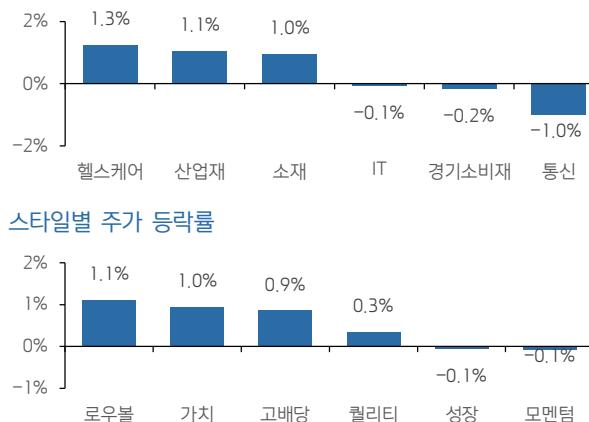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11 월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조 3.5%로 동결.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수정경제전망에서는 '23년 성장을 전망치는 1.4%로 유지한 반면, 24년 성장을 전망치는 기준 2.2%에서 2.1%로 하향. '23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준 3.5%에서 3.6%로, '24년은 2.4%에서 2.6%로 상향. 이창용 한은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이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확실히 시장이 앞서가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35.29	+0.61%	USD/KRW	1,290.10	+0.06%
코스피 200	338.43	+0.54%	달러 지수	103.52	+0.73%
코스닥	831.68	+1.12%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23.92	+1.25%	USD/CNH	7.14	-0.03%
S&P500	4,567.80	+0.38%	USD/JPY	148.18	-0.01%
NASDAQ	14,226.22	-0.23%	채권시장		
다우	35,950.89	+1.47%	국고채 3년	3.582	+3.2bp
VIX	12.92	-0.46%	국고채 10년	3.697	+5.7bp
러셀 2000	1,809.02	+0.29%	미국 국채 2년	4.680	+3.5bp
필라. 반도체	3,724.58	-0.77%	미국 국채 10년	4.326	+7.1bp
다우 운송	15,018.51	+1.36%	미국 국채 30년	4.493	+5.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82.47	+0.27%	WTI	75.96	-2.44%
MSCI 전세계 지수	692.09	+0.01%	브렌트유	82.83	-0.32%
MSCI DM 지수	3,013.93	+0.05%	금	2057.2	-0.48%
MSCI EM 지수	983.04	-0.25%	은	25.29	+0.88%
MSCI 한국 ETF	63.04	-0.54%	구리	382.9	+1.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8.6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한국 수출 결과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유입
2.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 선반영에 따른 자율주행, AI 관련주 차익실현 가능성
3. 월초 리밸런싱에 따른 장후반 이후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근원 PCE 물가, 개인지출, 고용 지표는 미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 이에 따라 내년 3월 ~ 5월 금리인하 기대감은 유지.

10 월 PCE 물가지수 YoY 3.0%(예상 3.0%, 전월 3.4%), 근원 PCE 물가지수 YoY 3.5%(예상 3.5%, 전월 3.7%)로 예상치 부합하며 물가하락 추세 재확인. 10 월 개인지출 역시 MoM 0.1%(예상 0.2%, 전월 0.3%)로 전월대비 감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8 만건(예상 22.0 만건, 전주 20.9 만건)으로 주간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10 월부터 21 만건을 지속적으로 상회, 2 주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최고치 기록. 11 월 실업률이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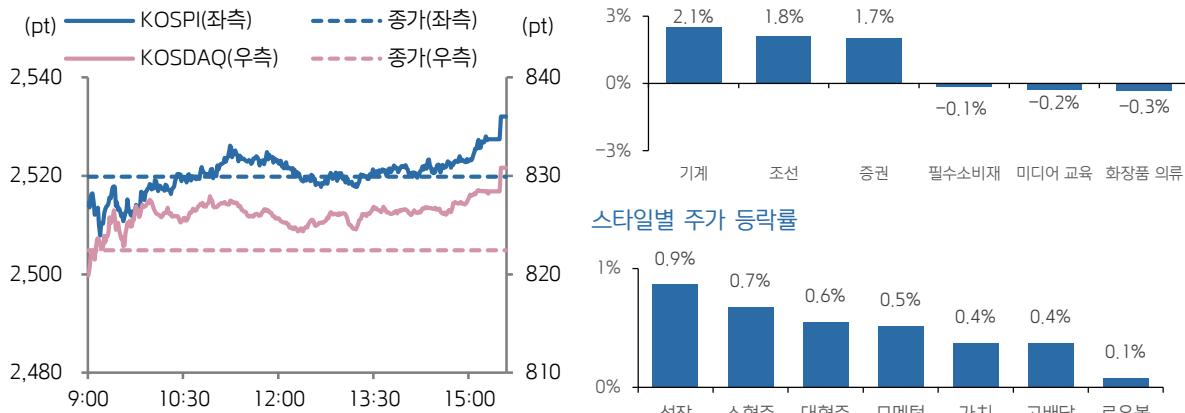
11 월 수익률 S&P500 8.9%, 나스닥 10.7%, 코스피 11.3%, 코스닥 13.0% 기록, 10 년물 국채 금리는 4.9%에서 4.3%대까지 하락. 10 월 낙폭 만회, S&P500 와 나스닥 기준 지난 7 월 고점 돌파를 앞두고 상단 제한되고 있는 만큼 12 월은 차익실현 명분이 존재하고 FOMC 이후 연준위원들의 매파 발언으로 인해 10 년물 국채 금리의 상방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 전일 나스닥, 반도체 업종의 약세에서 알 수 있듯 시장금리 4.5% 하회하는 레벨이 지속되어온 만큼 상승에 대한 민감도는 단기적으로 커질 것.

30 일(목) 국내 증시는 모멘텀 부재, PCE 물가지수 발표 대기 심리, 장중 한은 금리 동결 및 내년 경제성장을 하향(2.2% → 2.1%)으로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 장 마감 직전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며 강세 (KOSPI +0.61%, KOSDAQ +1.12%)

금일에는 미국 물가지표 예상치 부합, 다음주부터 연준위원의 블랙아웃 기간 돌입 등에 따라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보다는 금일 발표되는 한국 11 월 수출 지표(컨센서스 YOY +3.0%) 및 테마주들 중심으로 순환매 예상.

중국 11 월 제조업 PMI 49.4 (예상 49.8, 전월 49.5), 비제조업 PMI 50.2 (예상 51.1, 전월 50.6)로 예상치 모두 하회하며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12 월중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부양책 기대감으로 오히려 중국증시는 반등.

결국 중국 경기회복 지연,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금리 추가하락, 원/달러 환율 1,290 원대 횡보 등에도 민감도가 낮아지며 모멘텀 부재. 이에 따라 로봇, 태양광, 인터넷게임(낙폭과대 및 금리 인하 수혜) 또는 원전, 방산, 정치 테마주 등 순환매 유효. 전력기기(한전 요금인상 및 송배전 투자재개), 전기전자 및 결제 (미국 연말 소비 호조) 등 테마 역시 유효하며 12 월 FOMC 이전까지 종목 장세 전개 예상. 다만 금일 테슬라 사이버트럭 공개 기대감 선반영 인식으로 자율주행, AI 관련주는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	